차 이렇게 따라요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운림동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생활 차 마시는 법과 전통 다도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간업자 양식장 채취권 사들여 치패까지 싹쓸이

꼬막, 씨가 마른다

3년새 10분의 1로 급감… 남획금지 규정 시급

반찬이나 술 안주로 즐겨먹는 꼬막. 꼬막은 서민 식탁에도 흔하게 오르던 친근한 먹을거리였다. 하지만, 근래는 '귀하신 몸'이 됐다. 더욱이 값을 더 쳐주는 참 꼬막은 구경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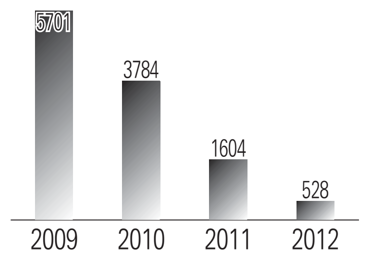
이처럼 꼬막이 귀해진 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욕심 탓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산지인 보성 등에서는 어촌계 소속 부녀자들이 갯벌을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뻘배'를 이용해 알이 굵은 꼬막만을 골라 채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번식이 이어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강진과 보성 등지를 중심으로 중간 채취업자가 밭떼기 식으로 양식장을 사들여 꼬막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씨가 마르고 있다.

업자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기계식 채취기구(일명 칼)를 이용해 15일 간격으로 1차에 가장 큰 성패, 2차로 중간 크기, 3차 어린 치패까지 무더기로 훑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갯벌에 피난다'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당연히 전남도 내 꼬막 생산량도 급감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 생산량은 5701t에 이르렀지만 이듬해 3784t으로 줄고 2011년 1604t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528t으로 3년만에 10분의 1로 줄었다.

■전남도 내 꼬막 생산량 (t)



전남에서 연간 꼬막생산량은 전국대비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정기 때는 2만t 이상이 생산돼 1990년대 말에는 중국에 1만여t 정도를 수출했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국내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수출이 중단된 이후 급기야 멸종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참 꼬막은 부르는 게 값이어서 '금 꼬막'이 되고 말았다.

자연스러운 꼬막 번식과 생산 유지를 위해서는 성패와 새끼조개를 최소한 10% 정도 남겨둬야 하나 바닥까지 파내는 바람에 종자번식은 물론 우량종자가 사라져 꼬막 씨가 마르고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 김용만 계장은 "온난화와 해양오염, 고령화된 일손부족 이유도 있지만 중간도매상들이 꼬막 양식장 채취권을 사들이면서 남획을 일삼아 생산량 감소와 자원 고갈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계장은 "업자들이 꼬막 채취시 일정 크기 이하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해 번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스티로폼 방음재 유독가스 치명타

종교시설·노래방 등 밀폐 공간 화재시 위험 상존

광주의 한 기도원 화재 폭발로 4명이 사망〈광주일보 15일자 6면 보도〉한 사고와 관련 방음 목적으로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음재(흡음재)의 위험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화재에 치명적 약점을 가진 폴리우레탄 재질을 방음재로 사용해 대형참사를 불러왔던 부산 서면 사격장 화재사건과,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에 유독가스를 내뿜는 방음재로 많은 사망자를 냈던 부산 노래방 화재 모두 내부 방음재가 문제였다.

경찰은 15일 기도원 화재 사망자 4명에 대해 부검한 결과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전달하고 "유독가스 등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불이 잘 붙는 소재의 방음재가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었고 지하 폐쇄된 공간에 있던 이들이 이를 마시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참변을 당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한 모금 정도만 흡입해도 의식을 잃을 정도라고 밝혔다.

광주 북부소방서 한 관계자는 "교회 같은 소규모 종교시설이나 노래연습실 등 지하 개인시설에서 방음을 위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사고 처럼 화재가 발생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시설물들은 소규모라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방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방염처리된 안전한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알 수 없다"며 "다만 누전이나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3층 건물 지하에 자리 잡은 기도원은 평소 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었으며 건물 외부에 LP가스통이 있었으나 기도원과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주 해군기지 고통" 광주서도 '1원 소송'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이 15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추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광주 외에도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제주 등 5개 지역 법원에도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됐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제주지역 74명 등 모두 300여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980년 고문 피해자 유족 전두환 상대 손배소

1980년 군사정권 시절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고인의 유족이 전두환(82)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모씨 유족은 '피고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75) 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등을 상대로 7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한국 민주화투쟁 정치범 동지회'에 속했던 손씨는 1980년 6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식당에서 시국토론을 벌이다 괴한들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손씨는 무차별 폭행, 물고문, 사흘간 잠 안재우기 등 온갖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198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후 고문 후유증을 앓다 2004년 사망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연합뉴스

완도해경 여경 음주운전 사망사고

행인 치어 1명 사망 1명 중상

현직 여성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A(여·35) 경사가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최경주공원 야외음악당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6)씨와 양모(49)씨를 치었다.

차에 치인 사람들은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김씨는 숨졌고 양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인 A 경사도 다쳐 입원, 치료중이다. 김씨 등은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경사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A 경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김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를 받고 있는 A 경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완도해양경찰은 15일 A 경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망언 지만원 무죄 통분"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놓고 5·18 기념재단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기념재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5·18을 정면으로 부인한 지만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금 5·18 원혼들과 그 유가족은 물론 부상자와 구속자 등 5400명의 5·18 유공자와 광주시민은 통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상습 음주 운전 30대 4달만에 또 쾅

쌍나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가 4달 만에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단속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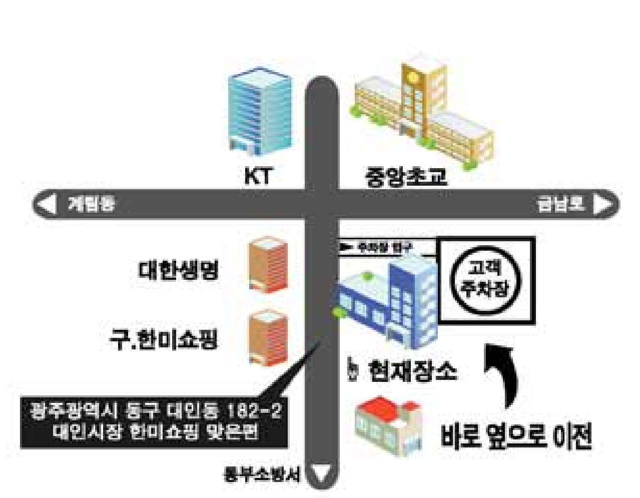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명.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취득!!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 :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이어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운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중-26%호